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김 진열 가톨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에제키엘 37,12=-14

화 답송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신앙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8.8-11

복음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음 | 요한 11.1-45

성가 | 입당성가 119 주님은 우리위해 예물준비 218 주여 당신종이 영 성 체 197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엘리사벳					
남정희 아녜스	이은경 헬렌					
김혜미 레오니아의 어머니 유금순	최병은 루치아					
유금순	김승연 안나					
유금순	정유진 콘솔시아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김정숙 정성영	민안젤라					
생미사	봉헌					
하서현 탄생 위해	김윤수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정다경 마리아					
허철범 베드로 쾌유	김승연 안나					
허철범 베드로	최병은 루치아					
여동건 루카	최병은 루치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다미아노홀 수리: 3/26(일)

오전 친교모임, 오후 성경공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과 함께드리는 공동 십자가의 길

날 짜	시간	주관 단체		
3/27(일)	08:30	양업회, 성령기도회		
4/2(일)	08:30	연령회		
4/7(금)	저녁 7시	사목회, 단체장, 전례부		

▶성삼일과 부활성야 전례 안내

주님만찬 성목요일(4/6): 밤 8시 윗 성당

주님수난 성금요일(4/7): 밤 7시 십자가의 길부터 윗 성당

파스카 성야(4/8): 밤 10시, 윗 성당

▶판공성사

사순 시기중의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성사표는 성사보신후 사무실 앞 통에 넣어주세요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 교육

4/13(목)-4/16(일), 요한 바로오 2세 피정의집, Kearny, NJ



▶2023년 바자회포스터, 티켓디자인 도와줄 봉사자모집

문의: 강경모 토마스(바자회 추진 부위원장) Tel: 310-413-1653, 카톡: Kangkenny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미사전 성경봉독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11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3월 성요셉 성월

요셉(Josephus)은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서 예수님을 기른 양부이 시다(마태 1,18-20; 루가 3,23). 그는 다윗의 가문으로 의인이었으며, 마리아의 법적 남편이었다. 따라서 예수는 요셉을 통한 다윗의 후손(마태 21,9)이었고 메시아로 불릴 수(마태 22,42) 있었다. 교회는 그를 교회의 주보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성가정, 동정녀, 환자, 임종하는 이의 주보로 정하여 특별한 은혜를 전구해 주도록 기도한다.

요셉 성월은 요셉을 특별히 공경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정한 달을 말한다. 특히 3월을 요셉 성월로 정한 것은, 성 요셉 대축일이 3월 19일이기 때문이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성 요셉을 성교회의 주보로 선언하고 그의 신앙적 모범과 덕을 기리고 본받도록 하였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 보







주일의 말씀

자연속의 인간! "너는 무엇을 믿느냐?"

곽재진 베드로 신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따르다가 바빌론 유배를 당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런 유배 상황을 무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당신 말씀에 충실하시고 당신 구원 경륜을 주도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느님 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꺼내어 되살리고자 하십니다. "내 영을 넣어 너희를 살린 다음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에제 37,14 참조)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당신의 의로움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로마 8,11 참조)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죽은 나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심으로써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지난 1월 늦겨울부터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죽음이라는 무덤가에 있는 듯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다시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 정치의 문제보다 공중보건과 공동선을 우선으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인간 중심도 아니고, 하느님과 인간만의 관계도 아니고, 하느님과 우리 그리고 생태계가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죽고 난 뒤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생태적 회개의 부르심을 듣고, 돌을 치우고 냄새나는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생태적 회개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하느님께서 참으로 생태계의 창조주요, 생태계의 구세주요, 완성자이심을 세상이 올바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요한 11.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시편 130)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 봉 사	복사1,2
3월 26일	이영노 율리안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김영숙 카타리나	이유채 이멜리아 한서희 데레사
4월 2일	백이백 스테파노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이경자 율리앤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